

서울시민 10명 중 8명 “택시요금 올라도 서비스 기대 안해”

서울시민 10명 중 8명은 택시 요금 인상 후 서비스 품질에 대해 별 차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원장 서왕진)이 26일 발표한 '1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정책리포트 제272호)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민들은 택시 요금 인상 후 서비스 품질에 대해 86.5%가 '별 차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개선될 것 같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7.5%에 불과했다.

서울시민이 택시요금 인상 후 희망하는 개선사항은 '승차거부'가 4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불친절'(29.0%), '난폭운전(육살)'(9.1%) 등의 순이었다.

카풀 앱과 관련해 서울시민 91.9%가 인지하고 있었다. 카풀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는 '보통'이 34.2%로 가장 많았다. '긍정적인 답변(긍정적과 매우 긍정적)'이 44.5%로 부정적 답변(부정적과 매우 부정적, 21.4%)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카풀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답변이 35.9%

희망 개선사항 승차거부 45.7% 1위

카풀, 긍정 답변이 부정 보다 2배 ↑

카풀 도입 41.6% '필요하다'로 답변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필요하다'는 답변이 41.6%로 '필요없다'(22.3%) 응답 보다 높게 나타났다.

시민의 체감경기를 알 수 있는 '소비자태도지수'가 올해 1분기

98.7로 전 분기 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자태도지수는 100을 넘으면 경제전망이나 소비지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뜻이고, 100보다 낮으면 반대로 부정적으로 판단한다.

소비자태도지수 구성요소 중 하나인 '현재생활환경편지수(가계 재정상황 인식을 나타내는 지표)'는 전 분기 대비 0.4포인트 하락한 87.0을 기록했다. '미래생활환경편지수'도 전 분기 대비 0.3포인트 하락한 90.8로 조사됐다.

시민들이 향후 가계소득 감소, 경기불황, 불가상속 가계부채 증가 등의 이유로 1년 후 가구 생활형편이 악화될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 구입태도지수' 역시 전 분기 대비 1.9p 하락해 69.5로 하락했다.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각종 규제 정책으로 주택거래가 정체되면서 집값의 추가 하락을 기대해 매수심리가 꺾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봉 연구위원은 "서울시민의 소비자태도지수 향방은 고용지표, 주택 구입태도지수 등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민생과 직결된 고용지표가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는 등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주택가격 불안정 등도 시민의 경제심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뉴스스



3천만 그루 나무 심어 도시숲 만든다

서울시가 2022년까지 총 3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2022-3000, 아낌없이 주는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26일 민선 6~7기 통산 2000만 그루 나무심기 정책 목표를 상향해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추가로 더 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3000만 그루 나무심기는 노후경유차 6만4000대가 1년 동안 내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에어컨 2400만대를 5시간 동안 가동하는 것과 동등하게 도심온도를 낮춘다. 성인 2100만명이 1년 간 숨쉬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도 기대된다.

프로젝트에 따르면 시는 가로수 식재방식을 개선하고 보행공간에 대한 녹화기준을 대폭 강화, 신규로

에서 생성되는 맑고 찬 바람을 각각 강남·북 도심으로 끌어들이 도심의 대기정체를 해소 도심 열섬현상과 미세먼지를 조기에 분산·저감시킨다.

산림청과 공동으로 총 200억원(시비 100억원·국비 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연내 기본계획 수립 후 2020~2021년 본격 조성작업을 진행한다.

시는 영유아·아동, 어르신 같은 미세먼지 민감군 등 보호를 위한 특화사업도 확대·강화한다. 운동장, 옥상 등 학교 내부 공간을 푸르게 만드는 기존 '에코스쿨' 사업을 지속 확대한다.

올해는 학교 밖 통학로 주변에도 벽면녹화, 띠녹지 등을 집중 조성하는 '초록빛 꿈꾸는 통학로 프로젝트'

서울시, 아낌없이 주는 나무심기 프로젝트 추진
민선6기 1530만 이어 1500만 그루 추가로 식재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지급

서울시교육청, 초 10만원·중 15만원·고 20만원 매월 지급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교육참여수당 지급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학교밖 청소년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매월 20만원을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준다는 게 골자였다.

교육참여수당 지급 대상은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인 '친구랑센터'에 등록된 청소년이다.

친구랑에 2개월 이상 등록된 청소년 중 센터 출석률 70% 이상을 기록해야 한다. 3월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한 학생은 총 41명이다. 이 학생들은 이달부터 교육참여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된다.

초등학교 단계 청소년에게는 매월 10만원, 중학교 단계 청소년에게는 매월 15만원이 지급된다. 고등학교 단계 청소년은 매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방법은 초·중학교 단계의 경우 교통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고등학교 단계는 현금 인출이 제한된 체크카드가 발급된다.

지급받은 수당은 ▲평생학습 관련 교육비 ▲진로개발을 위한 문화 체험비 ▲교통비 및 식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교육참여수당 지급을 운영 한 뒤 2020년까지 500명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2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친구랑센터에서는 교육참여수당 지급식이 열린다. 이 자리에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교육참여수당을 받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밖 청소년이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육아용품 선택하세요”

내달부터 51종 품목으로 늘어...10만원 상당 지원

서울시가 출생가정에 지원하는 10만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 선택권이 넓어졌다. 그동안 수유·건강·외출 3가지 세트 중 하나를 골라야 했다면 4월부터는 51종의 다양한 품목 중 가장 원하는 육아용품을 고르면 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그동안 약 3만 가정이 지원받았다. 신청자격은 서울시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아이와 동일 세대에 거주중인 보호자다.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출생 신고후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출생축하용품 신청을 한다. 이어 인증코드 신청후 1~2일내 발송)를

포함한 문자 수신 후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 홈페이지(서울해피박스 <http://www.seoulhappybox.com>)에서 희망하는 물품을 신청하면 된다.

홈페이지에 인증코드를 입력하면 10만 포인트가 주어진다. 10만 포인트 내에서 필요한 출생축하용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원하는 곳으로 배송받을 수 있다.

출생축하용품은 신생아부터 첫돌까지 꼭 필요한 체온계, 쿨물흡입기, 유축기, 기저귀, 모빌 세트 등 육아 필수품 51종으로 구성됐다.

김복재 서울시 가족담당관은 "서울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출생가정에서 원하는 품목을 고를 수 있도록 육아용품을 다양화 했다"고 말했다.

지역구감리·매장조경문·익심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생기는 가로변 보행공간을 미세먼지 저감·차단에 효과적인 '가로숲길'로 조성한다.

지역 여건에 따라 복층림, 지그재그, 군락식재, 인체형 차단숲 등 다양한 형태로 식재된다. 연내 가로수와 띠녹지 증진방안을 담은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 2021년까지 띠녹지 등 30km 규모로 조성된다.

가로변 교목은 1월이 아닌 2월 식재로 하고 가로변 녹지는 단층이 아닌 다층구조로 조성한다. 2월 식재는 1월 대비 미세먼지 25.3% 저감, 다층구조 녹지는 단층 대비 미세먼지 20%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벽면과 옥상, 가로녹지까지 약 1000㎡를 입체적으로 녹화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인 '서울도시건축센터 수직정원'을 비롯해 건물 내·외부를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신개념 도시녹화방식이 도입된다. '비림길 숲'은 관악산과 북한산

트를 새롭게 시작한다. 올해 10개 학교 통학로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30개 학교 통학로에 숲을 조성한다. 별도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사회공헌사업과 협업체 3개교에 숲을 조성한다.

시는 대형공원, 주요 간선도로 주변, 한강과 주요하천변, 물재생센터 등 대규모 유휴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녹지공간을 확충한다. 5월 마곡에 식물원과 공원을 결합한 서울시 최초의 보타너 공원 '서울식물원'이 전면 개원한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2022년까지 약 210만 그루 나무를 심어 미세먼지 저감숲을 조성한다.

시는 또 지하철역, 광장·공원, 버스정류장 같이 시민 일상과 가까운 공간 곳곳에 작지만 알찬 생활 밀착형 녹지공간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훼손된 산림 복원과 기존 도시숲 보전도 집중한다.

완도군 e-shop 원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